

기획조사 06-003

베트남의 WTO 가입 시
우리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2006.1

통상전략팀

《 목 차 》

【 요 약 】

I. 가입협상 주요일지	1
1. 베트남 가입 배경	1
2. 협상 일지	2
II. 베트남의 WTO 가입협상 현안	5
-미국과의 협상을 중심으로-	
1. 미·베트남 양자무역협정(BTA) 주요 내용	5
2. 미국·베트남 양자무역협정의 주요 현안	6
가. 관세	6
나. 서비스	6
다. 지적재산권	7
라. 외국인 직접 투자(FDI)	9
III. 전망	11
IV.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13

【 요 약 】

□ 베트남 WTO 가입위해 노력 중

- 1995년에 WTO 가입을 신청한 후, 2006년 1월 현재까지 10차례의 다자협상을 진행하였고 21개국과 양자협상을 타결함.
-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양자협상 신청국들과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그 중 협상력이 가장 강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협상타결이 가입의 관건임.
- 베트남과 미국의 협상이 순조롭게 완료될 경우, 미국 의회의 청문절차를 거쳐 비준을 거치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베트남의 WTO 가입은 2006년 11월 경에 가능할 것으로 파악됨.

□ 미국은 WTO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베트남에게 관세 인하, 규제완화 및 법제도의 안정성 강화 등을 요구

- 베트남의 평균관세율은 18.2%로, 품목별로는 농산물의 경우 평균관세율이 29.4%, 공산품 평균관세율이 17% 임.
 - EU와의 양자협상에서 농산품 평균관세율을 24%, 공산품 평균관세율을 16%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
 - 이를 미루어 볼 때, 이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관세율 수준에서 미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와 규제완화 요구
 - 자국 기업의 활발한 통신·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허용지분보유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
 - 외국 대형유통체인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과, 외국기업의 소매시장 진출을 허용할 것을 요구

- 자국의 소프트웨어, 영상물 산업 등의 對베트남 진출 위해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법규를 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강화할 것을 요구
-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세 등 관련 제도 변경 시 투자자들의 신뢰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투자제도의 안정성 강화 요구

□ 베트남의 WTO 가입 시 관세인하혜택과 시장개방효과로 인해 우리의 수출 및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쟁 심화 또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준비 필요

- 섬유의 경우 한국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섬유쿼터 폐지로 관련 원자재의 베트남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기계장비, 원유를 제외한 석유, 컴퓨터 및 부품, 휴대폰, 자동차 등은 관세인하 혜택 및 베트남 내수시장 성장 등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철강 등의 경우에는 이미 낮은 수입관세가 적용되고 있어서, 베트남의 WTO 가입 시 중국 및 러시아 제품과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비료의 경우,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비료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수출확대는 어려우며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우리나라의 對 베트남 투자는 식료품가공, 섬유, 석유화학 등 제조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WTO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 및 관세인하로 인해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반면 통신, 금융, 유통, 게임 등의 경우 베트남이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면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I. 가입협상 주요일지

1. 베트남의 WTO 가입 배경

□ 정부 측 입장

- WTO 회원국은 상호간에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부여함.
 - 현재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MFN)를 받고 있으나, 이는 양국간 무역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WTO에 가입해야 안정적인 최혜국대우를 받을 수 있음.
- 베트남 정부는 DDA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WTO에 가입하지 못하면 추후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등에서 더 무거운 의무를 지게 될 것을 우려
- WTO 가입으로 경제 도약 기대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에 의하면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 중 2/3 이상이 베트남의 WTO가입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2005년 11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총액이 2004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여 약 360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WTO 가입에 대한 기대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경우 WTO 가입 첫 해에 외국인직접투자가 38.4% 증가하였으며 수출이 22.4%, 수입이 21.2% 증가¹⁾함. 특히 베트남의 주력 산업인 섬유 및 의류산업의 경우 중국은 현재 전 세계시장의 19.7%를 차지하고 있는데, WTO 추산에 따르면 이는 WTO 가입 전과 비교하여 50%가량 증가한 수치

1) 자료원 : 아시아개발은행(ADB)

□ 경제산업계 입장

- 수출의 경우 WTO 양허에 따라 인하된 관세의 적용을 받아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며, 다른 회원국 기업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 할 수 있게 됨.
- 2005년부터 WTO 회원국간에는 섬유수입쿼터가 종료되었으나 베트남은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됨. EU는 2005. 1. 1일부로 對 베트남 섬유쿼터를 폐지하였으나, 미국은 여전히 섬유쿼터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

2. 협상 일지

□ 다자간 협상 진행 상황

- 1995. 1 베트남의 WTO 가입 신청 및 작업반(Working Party) 설치
- 1996. 8 베트남, 대외무역제도에 대한 각서(memorandum) 제출
- 1996~2000 1~4차 협상 : 베트남의 경제·무역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질의·응답
- 2002.4 5차 협상 : 베트남의 시장개방 양허안 구체화
 - 보조금
 - 국영기업
 - 지적재산권 보호
 - 관세 평가
- 2003. 5 6차 협상 : 베트남의 수정 시장개방 양허안 발표
 - 농산물 보조금
 - 이중가격제도
 - 국내법 개정 문제
 - 국산물품 의무사용규정
 - 위생 및 검역제도
 - 투자 규범
- 2003~2004 7~8차 협상 : 베트남의 양허안 검토
 - 농산물 보조금
 - 수출보조금

- 관세평가
- 국내법 개정 문제
- 국영무역기업
- 수입제한 및 쿼터
- 내국세
- 지적재산권 보호
- 위생 및 검역제도
- 2004. 12 9차 협상 : 작업반 보고서 초안 검토
 - 국내법 개정과 관련해 진행 경과 보고
 - 투자 규범
 - 보조금
 - 수입 면허
 - 국영기업
 - 수량제한
 - 위생 및 검역제도
- 2005. 9 10차 협상 : 작업반 보고서 수정 초안 검토
 - 국내법 개정과 관련해 진행 경과 보고
 - 수입 면허
 - 국영무역기업

□ 양자협상 진행 상황

- 양자협상 타결국
 - 2006. 1월 현재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대만, 콜롬비아, 쿠바, 유럽연합, 엘살바도르, 아일랜드, 인도, 일본, 한국, 노르웨이, 파라과이, 싱가포르, 스위스, 터키, 우루과이 (총 21개국) 와 양자협상 타결
- 양자협상 미 타결국
 - 베트남에 양자협상을 신청한 27개국 중 미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멕시코,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등 6개국은 양자협상 진행 중

- 베트남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모든 양자 협상 신청국과 합의를 도출해야 함. 그 중 협상력이 강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협상타결이 가입의 관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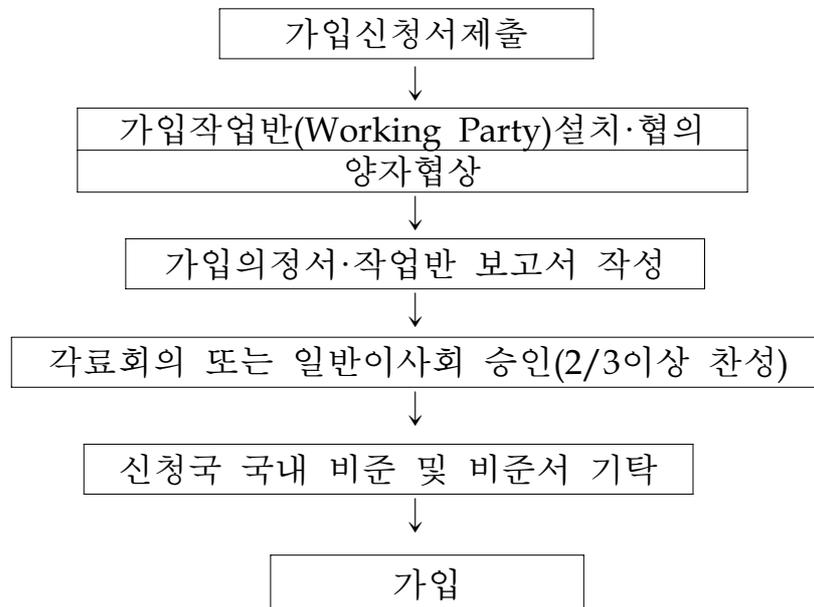
<표1> WTO 가입절차

※ 가입자격

- 주권 국가 또는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무역활동을 수행하는 독자적 관세 영역

※ 가입절차

- 신청국의 무역제도·시장개방 요건 등에 대한 양자협상을 완료하고 각료회의 또는 일반 이사회에서 회원국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



II. 베트남의 WTO가입협상의 현안

- 미국과의 협상을 중심으로-

1. 미국·베트남 양자무역협정(BTA)²⁾ 주요 내용

가. 관세

- 미국은 양자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베트남에 대해 구체적인 관세 감축 약속 요구
 - 베트남은 250여개의 품목(이 중 4/5가량이 농산물)에 대해 3년간 33%에서 50%에 이르는 관세 인하 약속

나. 서비스

- 미국은 베트남에 대해 서비스에 관한 WTO 규정에 부합하게 행동 할 것을 요구하고 금융, 보험, 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 시장 개방 요구
 - 베트남은 광범위한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을 약속하고 합작투자 시 미국기업의 허용지분보유율 상한을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합의 함.

다. 지적재산권

- 미국은 베트남에게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상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양자협정 체결
 - 베트남은 TRIPs 협정을 1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합의하고, 위성신호보호 등에 엄격한 규정을 포함한 지적재산

2) 2001년 12월 발효

권에 관한 양자협정을 미국과 체결함.

2. 미국·베트남 양자협상의 주요 현안

가. 관세

- 미국은 베트남이 수입관세를 더 낮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베트남은 자국이 개도국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주장
 - 베트남의 평균관세율은 18.2% 로, 품목별로는 농산품 평균관세율이 29.4%, 공산품 평균관세율이 17% 임. 이러한 관세율은 미국(평균관세율 3.6%)이나 싱가포르(6.9%), 중국(10.0%) 등에 비해 높은 수준³⁾
 - 그러나 WTO 회원국이자 베트남이 가입해 있는 ASEAN의 회원국인 인도네시아(평균관세율 37.1%), 필리핀(25.6%), 태국(25.7%), 말레이시아(14.5%) 등에 비하면 양호하거나 유사한 수준
 - WTO 출범 이후 가입하는 국가들의 경우 가입협상 시 기존의 WTO 회원국들이 더욱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베트남의 경우에도 WTO 가입을 위해 평균관세율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WTO 가입 당시 평균관세율이 15.3%이었음.
 - 베트남이 EU와의 양자협상에서 농산품 평균관세율을 24%, 공산품 평균관세율을 16%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이와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나. 서비스

(1) 통신

- 베트남 통신 시장은 급성장 중이나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는 이를

3) 자료원 : WORLD TRADE REPORT 2005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은 자국 기업의 활발한 진출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허용지분보유 증가 등 규제 완화를 요구

- 통신 네트워크 구축 산업의 경우 국영기업이나 정부투자기업만이 수행할 수 있으나, 통신 서비스 제공은 사기업도 가능
- 통신시장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국경간 공급(Mode1)과 상업적 주재(Mode2)가 가능하지만 투자형태는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⁴⁾에 의한 투자만이 허용되고 있음.⁵⁾
- 7개의 허가된 이동통신 업체 중 4개사(VinaPhone, Viettel, CityPhone, VP Telecom)는 100% 국영기업이고, 3개사(MobiFone, S-Fone, Hanoi Telecom)는 BCC 형태임.
-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경우 사기업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투자형태는 통신시장과 마찬가지로 BCC 형태에 의한 투자만이 허용되고 있음.
- 현재 미국 기업의 경우 허용지분보유율 한도가 49~50%인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를 50%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임.

(2) 금융

- 미국은 자국의 발전된 금융 서비스 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해 베트남 정부에 투자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
- 보험의 경우 단독투자 법인 및 합작투자 법인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모두 허용됨. 그러나 단독투자 법인의 경우 '베트남 보험 시장의 필요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허용됨.

4)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은 가장 구속력이 약한 외국인투자의 형태로, 베트남 내에 법인(단독법인 또는 합작법인) 없이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을 근거로 한 투자형태

- 현재 단독법인으로 생명보험서비스에 대해 허가를 받은 기업으로는 AIA, Prudential, Manulife Financial Corporation, ACE가 있음. Allianz는 최근 생명보험 외의 분야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 받은 바 있음.
- 자동차나 건축물 관련 손해보험 이외에 점진적으로 생명보험 등에도 외국보험회사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합의될 것으로 예상
- 은행업의 경우 외국 기업의 상업적 주재(Mode3)는 합작투자법인, 지사나 대표사무소 그리고 단독투자 법인 형태로 영업 가능
- ANZ, Hongkong & Shanghai Bank, 싱가포르의 United Overseas Bank와 같은 외국계 은행은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Citibank, JP Morgan Chase, 그리고 Far East National Bank는 베트남에 지사 설립 허가를 받음.
- 미국·베트남 양자무역협정에 따르면 미국계 은행은 2010년 12월까지는 최고 49%까지 합작투자법인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100% 지사 설립이 가능한데, 이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3) 유통

- 베트남은 자국 유통기업이 아직 경쟁력이 없을 뿐 아니라 외국기업이 베트남 국내유통시장을 장악할 것을 꺼려해서 외국기업의 소매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미국은 베트남 유통시장 진출 위해 규제완화 요구
- 외국인직접투자법 시행령에서 유통 및 소매업을 '제한적 투자분야'로 지정, 별도의 수상결정에 의해 투자허가를 내어주도록 하고 있음.
- 일부의 대형 유통체인을 제외하고는 소매업 분야는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실정
- 독일의 메트로(Metro Cashy & Carry), 프랑스의 Big C(Bourbon

Groupe), 말레이시아의 Parkson은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상태

- 외국 대형 유통체인의 시장진입이 좀 더 용이해지고, 소매분야도 투자형태 등에 제한을 두는 형태로 일단 개방한 후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다. 지적재산권

□ 베트남의 지적재산권 침해 정도는 ASEAN국가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임.

○ 소프트웨어

-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의 조사에 따르면, 2003년도 기준 베트남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92%에 이른다고 함. 이는 1999년 98%, 2000년 97%, 2001년 94%에 비해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세계 최고의 불법 복제율을 보이고 있음.

○ 비디오 등 영상물

- 베트남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영상물은 VCD, DVD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CD, DVD 중 90%가 불법 복제품으로 추산되고 있음. 국제음반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의 불법복제물보고서도 베트남에서 높은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계속 되고 있다고 보고

○ 출판물

- 현재 소설, 사전류, 책자 등 많은 외국서적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번역되어 출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종 상표, 특허 등과 관련하여 미국은 베트남의 지적재산권보호 정도를 강화하여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 수준으로 향상시

킬 것을 요구

○ 베트남의 지적재산권관련 법령

- 베트남은 아직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이 없음.
- 현재는 민법(1995.10.28 제정, 1996.7.1 발효)에 의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6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세부 실행규정은 각 부처별로 별도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음.
- 그 결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실행규정 제정 문제 등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미국은 이의 개선 요구
- 2005년 11월 베트남 국회에서 지적재산권법 통과되어 2006년 7월 발효 예정 임.

○ 베트남의 협정 및 협약 가입현황

- 베트남이 가입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다자협정으로는 산업지적 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특허협력협약(Patent Cooperation Treaty), 베른 협약(International Berne Convention on Literature and arts)이 있음.
- 베트남이 체결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양자협정으로는 미국·베트남 저작권 관계 설립에 관한 협정(US-Vietnam Copyright Agreement), 지적재산권에 관한 스위스와의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Switzerland an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 있음.

○ 보호내용

- 지적소유권 등록을 희망하는 해외단체나 개인들은 베트남 지적재산권국(Nati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 NOIP)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 등록할 수 있음.
- 특허는 20년간, 실용신안등록은 10년간, 산업디자인은 5년마다 갱신해 최대 15년간, 상표 등록은 갱신의 제한 없이 10년간 보호되나, 유명 상표의 경우 무한히 보호됨.
- 그러나 관련 법 위반 시 처벌에 일관성이 없는 등, 강제력이 미비한 상황임. 미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

라. 외국인직접투자(FDI)

□ 2004년 법인세 규정이 개정되어,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오히려 상승하는 등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미국 정부는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규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 개선하여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것을 요구

- 베트남 기업과 새로 진입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해 28%의 단일 법인세율 적용됨. 이는 베트남 기업에게는 기존 법인세율 32%에 비해서 감소한 것이나, 신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기존법인세율 25%에 비해 3% 증가한 것임.
- 석유나 다른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과 관련한 기업의 경우 28%에서 50% 사이의 법인세율이 적용됨. 이러한 품목에 관한 구체적인 법인세율은 개별기업의 상황이나 생산량에 근거하여 베트남 수상이 결정

Ⅲ. 전망

□ 베트남의 WTO 가입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양자협상일 것임. 2005년 말까지 양자협상을 완료하지

못하여 베트남의 WTO 조기 가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2005년 11월 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미국의 베트남과의 협상에 관한 공청회에서 양자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Ginny Foote는 미국은 현재 베트남과의 협상에서 "Bottom Line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어 베트남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을 확인시켜 주었음.
 - 2005년 11월 베트남 부총리 Vu Khon은 "베트남은 어떠한 희생도 치르면서까지 WTO에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WTO가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우리가 양허할 내용이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여 무조건 양보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
 - 베트남과 미국의 협상이 순조롭게 완료될 경우 동 협의안이 미국 의회의 청문절차를 거쳐 비준을 거치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베트남의 WTO 가입은 2006년 11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파악됨.
 - 2006년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와 국내사정을 고려할 때 베트남이 미국과 WTO 가입협상을 2006년 3월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베트남의 2006년 연내 가입 불투명
 - 베트남 정부는 6월에 자국에서 열리는 APEC 장관급 회의 전에 WTO 가입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함.
 - 중국의 경우 WTO의 회원국이 되기까지 15년 소요
- 2005.12 홍콩 각료회의에서 베트남 가입문제 타결되지 못함.
- 2005년 12월 15일 각료회의에서 149개 회원국들은 통가의 WTO 가입(150번째 회원국)을 정식 승인하였으나, 베트남은 양자협상 미완료로 인해 의제에서 제외
 - DDA협상의 지속적인 논의 위해 2006년 초 각료회의의 소집이

예정되어 있음. 이 시점까지 양자협상을 완료한다면 동 각료회의에서 베트남 가입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 있음.

IV.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1. 수출에 미치는 영향

가. 긍정적 영향

- 베트남의 10대 주요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하여,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수출 유망품목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음.
- 유망 품목들은 베트남에서 조립되어 제 3국에 수출되는 상품 (특히 미국에 수출되는 상품)이거나, 베트남 수입관세인하에 따른 수혜를 누리는 품목임.

□ 수출 유망 품목

<표2>베트남의 WTO 가입 시 수출 유망 품목

품목	내용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동 분야에 진출한 262개의 한국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47억불에 달하는데,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를 75~80% 정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 산업내의 수입비중에서 한국제품의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음 - WTO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섬유쿼터가 철폐되므로, 관련 원자재의 베트남 수출이 급증하여 베트남의 WTO 가입 후 2년 내 그 규모가 현재의 1.5배 내지 2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
기계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상품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도 9월까지 동 품목의 對 베트남 수출금액은 3억 1천만 불에 달하고 있음 - 기계장비 분야 중 특히 통신장비 분야의 수출은 베트남의 자체시장의 성장 및 WTO 가입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됨
석유 (원유제외)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유공장이 없기 때문에 석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베트남이 현재의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 품목의 수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임 -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가 원유생산량 감소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관련제품의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임
컴퓨터 및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회원국간 CEPT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컴퓨터 및 관련부품에 대한 관세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만 0~5% 수준으로 인하가 예정되어 우리기업의 피해가 예상됨 - 하지만 WTO 가입에 따른 전반적인 관세인하 효과와 베트남 내 수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관련 품목의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휴대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베트남의 유무선 전화의 사용인구는 100명중 12.7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절반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베트남 통신시장의 성장 및 WTO 가입에 힘입어 휴대폰 및 관련 장비의 수출 급증이 전망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내 자동차 대수는 100만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100~150% 수준에 이르는 관세 및 특소세(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WTO 가입에 따라 현재 100%~ 150%에 이르는 관세 및 특소세 인하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의 수출증대가 확실시 되며, 베트남 정부의 오토바이 규제에 힘입어 자동차 시장의 전망은 밝음.

나. 부정적 영향

○ 베트남의 WTO 가입 시, 최혜국대우 규정으로 인해 모든 WTO

6) '경질 석유 및 조제품을 제외한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HS 코드 271019)의 對 베트남 수출액

(단위 : 천불, %)

2004		2005(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342,085	363.1	385,42	36.7

자료원 : KOTIS

7)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에 대한 베트남의 특소세는 25~80%에 달함.

회원국들에게 인하된 관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중국 등과 경합하고 있는 상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화 될 것임.

- 현재 이미 낮은 수준의 수입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경쟁의 심화로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러한 품목은 표3과 같이 전망됨.

□ 수출 피해 예상품목

<표3>베트남의 WTO 가입 시 수출 피해 품목

품목	내용	주요경쟁국
철강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철강제품의 수입관세는 0~5%로 이미 낮은 수준이며, 원철(Crude steel)의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에서 값싼 제품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 -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의 효과는 미약하며, 우리나라 철강제품은 베트남 내에서 현재 5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중국 및 러시아 제품에 의한 견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 판단됨 	중국, 러시아, 대만, 일본
오토바이 및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는 현재 1300여만 대의 오토바이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베트남 정부는 오토바이를 교통정체 및 공해의 주범으로 지목하여 그 수를 제한하고 있음 - 현재 오토바이 시장은 브랜드 인지도가 우세한 일본제품과 가격 경쟁력이 우세한 중국제품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 - 그 결과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의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중국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기업의 경우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을 젊은층의 취향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경쟁이 치열해진 시장에서 생존하는 길이라 판단됨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베트남 의약품 수입시장에서 우리 의약품은 8위~9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관세가 인하될 경우 베트남 사람들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우리나라 의약품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재 의약품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수출 중인 우리기업들은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및 광고를 지속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대형 유통업자와의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임 	프랑스, 캐나다, 독일, 미국, 중국
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은 연간 200만 톤의 요소비료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40~50만 톤의 비료를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은 4~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할 때, 큰 격차임 - 베트남 GDP의 20.7%를 농업·임업·수산업이 차지하고 있어,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게 될 경우 농업 및 임업 관련 제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로 인해 비료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비료제품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수출확대는 어렵고 가격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기업은 비료 완제품을 수출하기 보다는 비료 원료를 수출하는 등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은 연간 2억 5천만 불 규모의 제지를 수입하고 있는데, 주요 수입국은 일본, 싱가포르, 중국임 	일본, 싱가포르,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의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제지 및 관련제품에 대한 수출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저가 제지제품의 경우 수익성이 낮고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은 고급제지 시장을 겨냥하는 전략이 필요함 	인도네시아
--	---	-------

2. 투자에 미치는 영향

- 과거 중국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WTO 가입을 통해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 자유화가 심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듯 2005년 11월 말 베트남의 투자유치금액은 2004년 대비 40% 증가한 36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직접투자는 대부분 제조 및 서비스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시장개방에 따른 시장선점을 노린 전략적 투자라고 판단됨.
- 베트남 무역부(MOT)에서 발간하는 Vietnam Economic News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11월까지 투자건수 면에서는 1위, 투자금액 면에서는 3위를 점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 투자는 다른 나라의 투자와 비교할 때, 제조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미약함. 기 투자 진출 분야별 영향은 표 4와 같이 분석할 수 있음.
- 기 투자진출 분야에의 영향

<표4> 기 투자진출 분야에 예상되는 영향

분야	내용
식료품	- 한국은 이 분야에 5천 1백만 달러 상당의 16개 프로젝트

가공	<p>를 진행 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중심이 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가 인하되고 미국의 對베트남 농산물쿼터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진출한 투자기업에게 수출전망은 밝으나 베트남 내수시장 전망은 불투명함 - 특히 시장개방에 따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저가 가공 식료품의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높은 관세의 보호를 받으며 베트남에 진출해 있던 우리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서 고전할 것으로 보임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분야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분야로 262개 투자기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WTO 가입 시 미국의 섬유쿼터가 철폐되므로 수출확대가 기대됨 - 반면, 올 들어 진행된 대형 투자프로젝트 18건이 섬유 및 의류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업계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신발가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기업의 7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베트남 수출 기여도가 큰 분야임 - 2004년 베트남의 이 분야 수출액은 25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수출액이 62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있음 - 미국 및 유럽의 쿼터에서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출증대가 기대되며, 원부자재의 수입관세 인하로 인해 제조단가가 감소될 것으로 보임 - 한편 베트남 내수시장은 중국과 인도의 저가제품에 의해 잠식당해 우리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기도 함
종이인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기업은 이 분야에 총 8개 프로젝트에 2천 7백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확인됨 - 올해까지는 관련제품에 높은 수입관세가 적용되고 외국기업의 진출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우리기업은 상대적으로 시장 선점에 따라 이득을 누릴 수 있었음 - 그러나 아세안의 FTA 발효에 따라 역내국가에 대해 특혜관세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가 ⁸⁾ 적용되고, WTO 가입에 따라 관세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내수시장에서 고전 할 듯 함
석유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분야에는 석유공사가 진출하여 1억 달러 상당의 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 베트남의 WTO 가입 후 BP 나 Shell 등과 같은 거대기업의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기업의 어려움이 우려됨
비금속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에는 석유를 비롯한 석탄, 화강암,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음 -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광물자원 채굴 기여도는 전체 채굴량의 1.1~2.4%수준에 그치고 있음 - 현재는 국영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굴량이 적은 상황임 - 베트남의 WTO 가입으로 인해 내국민대우가 보장될 경우, 전체 채굴량의 30%수준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기업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중국 및 미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가 예상됨
1차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1차 금속 중 크롬과 아연만이 수출 가능한 수준의 매장량을 보이고 있으며, 금속광물에 대한 매장량은 다른 자원에 비해 낮은 수준임 - WTO 가입에 따른 국영기업과의 차별대우 철폐로 인해 투자 환경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투자 유인이 적은 상황인데다 베트남 정부의 규제마저 예상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조립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금속 제조분야는 제품생산을 위해 원료의 72%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 - WTO 가입 후 경제성장에 따라 조립금속 수요증대가 예상되나, 현재까지 유지되던 18% 수입관세로 인한 시장보호 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투자 매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임
기계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이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베트남 정부의

	<p>차별정책으로 인해 주로 농기구를 비롯한 기초 기계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가입에 따라 투자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베트남에 인접해 있는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 투자 수익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
전자통신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은 대부분의 전자통신장비를 아세안 국가나 한국, 미국 등 외국에서 수입 - 이 분야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 개방이 확대되더라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베트남의 8천만이 넘는 인구나 1천 3백만에 불과한 전화가입자수로 인해 매력적인 투자진출지로 부각되어 미국기업의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됨
수송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 있는 분야임. - WTO 가입에 의해 투자환경 개선됨에 따라 자동차, 철도 등 투자대상이 풍부 함. - 다만 이 부문 역시 베트남 정부의 보호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진출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신규투자진출 유망분야

<표5>신규투자진출 유망분야

분야	내용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정부는 외국기업과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진출은 전망이 밝음 - 다만, 이 분야에 기존에 진출한 프랑스, 영국, 독일 기업들과의 경쟁은 불가피함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시장은 지난 5년간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금융 분야는 제한된 영역 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상황임 - 베트남 정부가 이 분야 투자유치 시 합작투자를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기업은 투자진출에 신중을 기해야 함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베트남 양자 무역협정에 기초하여 베트남은 미국기업

8)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 :AFTA 추진에 따른 역내 상품 수입 관세 인하 프로그램인 공동유효특혜관세이행계획에 따른 특혜관세

	<p>에게 3~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도매, 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방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가입에 따라 우리 기업의 관련 분야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프랜차이즈 분야의 투자 급증이 예상됨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은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0대 이하이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함 -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온라인을 비롯한 게임시장의 투자진출 전망은 낙관적임
드라마 관련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한류 열풍에 베트남이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데, 드라마 자체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고 관련 상품을 통한 투자는 성장전망이 있다고 볼 수 있음

3. 주요 바이어 반응

바이어명	취급품목	의견
FIBRE OPTIC CABLE AND ACCESSORIES J.V.C (FOCAL)	광케이블 및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취급품목의 수입관세율이 0% 수준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WTO 가입후 2~3년간은 회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국제 가격경쟁에 직면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기술개발에 전력을 투구할 예정
KEE EUN VIETNAM CO., LTD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 및 의류산업은 베트남의 WTO 가입 후에도 성장세가 가속될 것으로 기대됨 - 이 회사는 베트남의 WTO 가입 후 수출이 2~3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WTO 가입에 대비하여 생산라인 증설 및 인력확보에 주력할 예정

V. 시사점

- 2005년 하반기에 실시된 베트남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의 61.5%가 베트남의 WTO가입이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 무역부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계 및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의 우리제품의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
 - 투자분야에서는 한국의 투자기업들의 대부분이 베트남 내수보다는 수출을 중심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對베트남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서비스 분야는 현재 베트남 정부에서 강력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WTO 가입으로 인해 이러한 조치가 완화되면 우리 기업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진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베트남의 WTO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준비가 필요
 - WTO 가입으로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최혜국대우로 인해 중국 등 경쟁국도 동일한 대우 받음.
 - 베트남의 수입관세인하에 따른 수혜 품목의 경우 예상되는 수요 증가에 맞추어 생산설비 확장 등의 투자 필요할 듯
 - 이미 낮은 수준의 수입관세를 적용 받고 있는 품목의 경우 중국 등 기타 경합국들과 가격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므로 제품의 질 향상이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에 힘써야 함.
 - 통신·금융 등 서비스 산업 접근을 위해 합작 파트너 물색 및 베트남의 관련 법령 숙지 등의 준비자세 필요